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ternal Marital Satisfaction and Caregiving Behavior on Preschoolers' Paternal Representation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우 수 정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이 영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 Sujung Woo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Young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ternal marital satisfaction and caregiving behavior on children's paternal representations. 112 preschoolers(67 boys and 45 girls, aged 4-5) and their fa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paternal marital satisfaction had a direct effect on caregiving behaviors. Secondly, paternal caregiving behavior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paternal representations. Thirdly, paternal marital satisfaction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paternal representations. Fourthly, paternal caregiving behavior did not have a mediatory effect between paternal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ren's paternal representations. In conclusion, paternal marital satisfaction has influenced on caregiving behavior and children's paternal representations.

주제어(Key Words) :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자녀양육행동(caregiving behavior), 아버지 표상(paternal representation)

I. 서론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부모-자녀 간 경험을 통해서 유아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성된다. 애착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뜻한다(Bowlby, 1969, 1973). 부모에 대한 애착은 유아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는 정서적 경험에 기초하여 자신과 애착대상 및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적실행모델로 구조화된다(Bowlby, 1969).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의 중요성은 애착대상과 형성한 애착관계가 이후 발달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표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Holmes, 2005). 이렇듯 중요성을 지니는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은 유아의 부모에 대한 표상으로 반영된다. 즉 부모와의 정서적으로 의미있는 경험들이 내면화되어 형성된 부모 표상은 유아의 부모에 대한 지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Emde, Wolf, & Oppenheim, 2003). Bowlby에 의하면 애착에 대한 내적실행모델 개념은 표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 표상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신혜원, 2004). 표상을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 내러티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Bushbaum & Emde, 1990).

애착이론에서는 유아와 부모 관계에 있어서의 애착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부모양육행동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예: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그 중에서도 점차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머니 역할관련 연구에 비해서는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아버지는 유아의 발달 영역에 있어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Rohner, 1998). 비록 아버지가 유아를 양육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어머니보다 적을지라도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성수현, 1996). Lamb(2002)과 Parke(2000)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안정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rown, McBride, Shin과 Bost(2007)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적응적이지 않을 때 유아는 아버지에게 낮은 수준의 애착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연구에 비해 아버지 양육행동과 유아의 아버지 표상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아버지 양육행동이 유아가 형성하는 아버지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유아기 아동의 경우 자율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부모 양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아기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이에 따른 유아의 아버지 표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부의 결혼관계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Belsky, 1984). 이러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결혼만족이라고 한다(Dainton, Stafford, & Canary, 1994). 결혼생활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긍정적(또는 부정적) 행동이 하나의 관계에서 또다른 관계로 연결된다는 스피일 오버(spillover) 효과가 결혼생활과 부모자녀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결혼생활에서의 긍정적(또는 부정적) 결과가 부모자녀관계에도 긍정적(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할 경우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양육행동 수준이 높았으며(성영혜, 1998; 이자형, 김혜영, 2004; 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또한 아버지의 경우 결혼갈등이 있을 때 덜 긍정적이고 보다 강압적인 자녀양육행동을 보였다(Brody, Pillegrini, & Sigel, 1986). 이처럼 결혼관계는 자녀양육지원의 일차적 자원으로서 기능하므로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Belsky, 1981). 특히,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보다 더 결혼생활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었다(Belsky, Youngblade, Rovine, & Volling, 1991; Cowan & Cowan, 1992). 이에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아버지의 결혼만족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검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은 부모-자녀관계 및 결혼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었다(Shamir, Du Rocher-Schudlich, & Cummings, 2000). 먼저, 걸음마기 유아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Goldberg와 Easterbrooks(1984)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이 낮을 경우 자녀들과 불안정 애착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었고 결혼만족이 높을 때에는 자녀들과 안정 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 Howes와 Markman(198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자녀들과 보다 안정애착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결혼만족은 부모가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고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안정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였다(Frosch & Mangelsdorf, 2001). 같은 맥락에서 결혼갈등이 있을 시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보다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Frosch, Mangelsdorf, & McHale, 2000). 이러한 일련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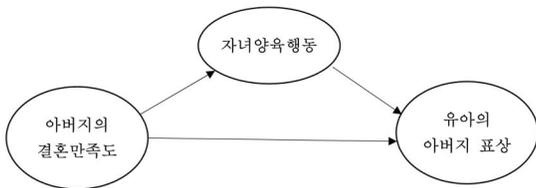
구들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표상과 아버지 양육행동 또는 아버지 양육행동과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들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아버지의 결혼만족, 양육행동과 유아의 아버지 표상을 함께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 표상과 애착 간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로 해서 결혼만족과 자녀양육행동, 그리고 애착에 대한 연구결과들(예: Frosch & Mangelsdorf, 2001)을 토대로 결혼과 양육에 따른 유아의 표상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요약해보면, 아버지의 결혼만족은 자녀의 양육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어서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표상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을 파악하고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자녀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봄으로써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아버지-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및 아버지 교육을 위한 보다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가설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문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 가설 1.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가설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4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들 112명(남아 67명, 여아 45명)과 그들의 아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특성

(N = 112)

변인	내용	빈도(%)
연령	4 세	45(40.2)
	5 세	67(59.8)
성별	남아	67(59.8)
	여아	45(40.2)
출생순위	첫째	68(60.7)
	둘째	38(33.9)
	셋째	6(5.4)
형제수	외동아	24(21.4)
	한 명	78(69.6)
	두 명	10(9.0)

<표 2> 연구 대상 아버지의 특성

(N = 112)

변인	내용	빈도(%)
연령	20~29세	5(4.5)
	30~39세	69(61.6)
	40~49세	38(33.9)
교육수준	고졸	33(29.5)
	전문대졸	18(16.1)
	대졸	56(50.0)
	대학원 이상	4(3.6)
	무응답	1(0.9)
	무직	0(0.0)
직업	판매·서비스	9(8.0)
	사무직	29(25.9)
	생산직	4(3.6)
	자영업	30(26.8)
	공무원	3(2.7)
	전문직	23(20.5)
	기타	13(11.6)
	무응답	1(0.9)
월 소득	100~200만원	18(16.1)
	200~300만원	24(21.4)
	300~400만원	23(20.5)
	400~500만원	18(16.1)
	500만 원 이상	28(25.0)
	무응답	1(0.9)

버지들 112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 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연구도구

1)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결혼만족 질문지들의 항목을 종합하여 Norton(1983)이 6개의 평가적 문항으로 개발한 결혼생활 질 척도(Quality Marriage Index: QMI)를 장춘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리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나와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우리의 부부유대는 강하

다', '나는 나의 배우자로 인하여 행복하다', '나는 정말로 내가 나의 배우자와 운명을 같이하는 한 팀을 이루었다고 느낀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아도 나의 결혼생활은 행복하다' 등의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매우 동의한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관계에서 높은 만족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95였다.

2) 자녀양육행동

유아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Rohner (1991)의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황혜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온정/애정요인을 측정하는 20문항, 공격성/적대감을 측정하는 15문항, 무시/무관심을 측정하는 15문항, 모호한 거부를 측정하는 10문항 등 모두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거의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한다.

부모 수용-거부 척도는 크게 수용차원과 거부차원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수용차원에는 온정/애정 영역이 해당된다. '나는 우리 아이의 좋은 점과 잘한 일들을 이야기한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거부차원으로는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모호한 거부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공격성/적대감에는 '나는 아이를 때릴 필요가 없을 때에도 때린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무시/무관심의 경우 '나는 우리 아이를 무시한다', 모호한 거부는 '우리 아이가 나에게 짐이 된다', '나는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도 개의치 않는다' 등의 문항이 있다. Cronbach α 는 온정/애정적 양육행동은 .88, 공격성/적대적 양육행동은 .84, 무시/무관심한 양육행동은 .85, 모호한 거부는 .72이었다.

3) 아버지 표상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내적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이 개발한 이야기 완성과제(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를 이영, 민성혜, 신혜원과 유영미(in press)가 번안한 Korean-MacArthur Story-Stem Battery(K-MSSB)를 사용하였다. 이야기 완성과제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가족갈등,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4개의 이야기 도입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뽀빠를

잃어버렸어요', '엄마의 두통', '약상자' 이야기를 제외한 '주스 옆지르기', '엄마/아빠에게 선물', '셋은 너무 많아요', '뜨거운 국 냄비', '잃어버린 열쇠', '사탕 훔치기', '여행 떠나기', '재회', '바위 오르기', '배제', '과자상자'의 11가지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이야기 완성 과제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는 유아와 놀이 상호작용을 함께 하면서 라포(rapport)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후 연구자는 자신이 먼저 이야기의 도입부를 시작하고 나면 유아가 그 뒤를 이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면 된다고 안내한다. 유아와 함께하는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이야기 완성과제는 평균적으로 40~50분이 소요되었다.

녹화된 자료는 Robinson 외(2004)의 코딩 매뉴얼(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을 이영, 민성혜, 신혜원, 유영미와 민현숙(in press)이 번안한 Korean-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K-MNC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아가 완성한 내러티브 내용과 함께 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들을 토대로 유아의 내적표상은 평정되는데, 유아의 부모에 대한 표상은 긍정적 표상, 부정적 표상, 혼육적 표상의 3개 범주로 구분된다. 각 범주에 따른 하위항목 및 조작적 정의는 <표 3>과 같다. 각각의 이야기마다 해당되는 표상범주가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코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아버지 표상의 경우 11가지 이야기에서 해당 표상범주가 코딩된 횟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평균점수는 0~1점의 범위를 갖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의 표상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MSSB 코딩 매뉴얼을 제작한 JoAnn Robinson에게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K-MSSB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역시 K-MSSB 연수를 이수한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과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아버지 표상에 대한 본 연구자와 평정자 간 신뢰도는 $r = .94$ 였고, 각 범주별로는 긍정적 표상 $r = .87$, 부정적 표상 $r = .70$, 혼육적 표상 $r = .96$ 이었다.

4) 언어성 지능검사

유아의 언어능력에 따라 유아가 이야기 완성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박혜원, 광금주와 박광배(1995)가 표준화한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 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중 '언어성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상식(27문항), 이해(15문항), 산수(23문항), 어휘(25문항), 공통성(20문항)의 5가지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소검사에 따른 환산점수의 범위는 1점~18점이다. 각 소검사들의 환산점수를 합하여 언어성 지능 점수를 산출하였다. 경계선에 해당하는 언어성 지능 점수 79점 이하(박혜원 외,

〈표 3〉 유아의 부모 표상 범주 및 조작적 정의

표상범주	하위항목	조작적 정의 및 예
긍정적 표상	보호적인	가능한 혹은 실제의 위협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예) “가위 조심해.”
	양육적인	돌보는 행동을 하고, 먹이고, 유아의 상처를 돌봐준다. 예) 부모가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잠자리에 데려다 준다.
	애정적인, 온정적인, 돌봐주는	지지적이고 따뜻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유아를 안아주고 뽀뽀하고 칭찬해 준다. 예) “그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에게 뽀뽀해요.”
	도움을 주는	부모가 유아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거나 유아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이다. 예) 유아가 잃어버린 개를 찾는 것을 부모가 도와준다.
부정적 표상	거칠고, 처벌적인	전형적으로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심각한 매질이나 죽이는 것을 포함한 공격성, 부적절한 성격 표현 또는 과도한 혼욕 등을 포함한다. 예) “너를 발로 차버릴 거야.” 엄마가 아이에게 주전자를 던진다. 비난하기 등.
	거부적인	부모가 유아를 밀친다. 예) “그 그림은 정말 흉측하네.”
	무력한	부모는 유아가 질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유아를 돕거나 지원하려는 마음이 없거나 도움 힘이 없다.
혼욕적 표상	혼욕적인	부모는 유아를 혼욕하고 통제하는 권위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또한 신체적 처벌이 잘 조절되고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면 혼욕적 표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지 마.”

1995)의 유아를 판별하기 위해 본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점 이하의 유아가 없었으므로 모든 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4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들 112명과 그들의 아버지들 112명이었다. 먼저,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용 질문지 총 202부를 교사들을 통해서 유아들에게 배포하였다. 질문지 봉투 안에는 질문지 외에도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질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였다. 원장님과 담임교사들에게는 질문지 수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질문지를 배포하고 1주일 후 유치원을 방문하여 회수된 질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여분의 질문지를 수거하기 위해 2주 후 다시 유치원을 방문하였다. 최종적으로 아버지 질문지가 수거된 1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에 마련된 빈 교실에서 유아들과 래포형성을 한 후 이야기 완성과제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이후 휴식시간을 가진 후 언어성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 각각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

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넷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M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df 비율(Q값)을 이용한 표준카이제곱값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평가기준을 위한 적합도 지수로는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과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그리고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결과 해석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만족도와 온정/애정적 양육행동 간에 정적상관을 보였고($r = .407, p < .001$), 결혼만족도와 공격성/적대감($r = -.247, p < .01$), 무시/무관심($r = -.441, p < .001$), 모호한 거부($r = -.260, p < .01$)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온정/애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모호한 거부와 같은 거부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표 4〉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

(N = 112)

변인	1	2	3	4	5	6	7	8
1. 결혼만족도	-							
2. 온정/애정	.407***	-						
3. 공격/적대감	-.247**	-.613***	-					
4. 무시/무관심	-.441***	-.766***	.739***	-				
5. 모호한거부	-.260**	-.604***	.813***	.726***	-			
6. 긍정적표상	.165	.193*	-.051	-.166	-.017	-		
7. 혼육적표상	.256**	.120	-.033	-.125	-.060	.247**	-	
8. 부정적표상	-.298**	-.209*	.025	.192*	.051	-.077	-.186	-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아버지 표상 간 관계를 보면, 아버지의 온정/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정적상관을($r = .193, p < .05$), 부정적 표상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r = -.209, p < .05$).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행동 중에서는 무시/무관심한 양육행동과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 = .192, p < .05$). 이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애정적일수록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더 긍정적이며 덜 부정적임을 뜻한다. 또한 아버지가 무시적이고 무관심한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더 많이 나타냈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아버지 표상 간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결혼만족과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혼육적 표상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고($r = .256, p < .01$), 부정적 표상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r = -.298, p < .01$). 이는 아버지의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유아는 아버지에 대한 혼육적 표상을 더 많이 보였고 부정적 표상은 덜 보인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때 유아의 성에 따라 아버지 표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t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유아의 성을 통제하지 않은 채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고자 〈그림 2〉의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RMSEA는 .12로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LI, CFI의 값은 .87과 .91로 적합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수정지수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공격성/적대감의 오차항인 e2와 모호한 거부의 오차항인 e4간 공분산에 대한 수정지수 값이 보수적 수준으로 권하는 10을 초과하였다(Fassinger, 1987). 이에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공격성/적대감의 오차항인 e2와 모호한 거부의 오차항인 e4간 상관을 설정하는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TLI = 1.00, CFI = 1.00, RMSEA = .00)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에 비해 훨씬 나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수정모형이 연구모형보다 자료의 속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정모형을 선택하여 검증하도록 하였다. 수정모형의 추정치들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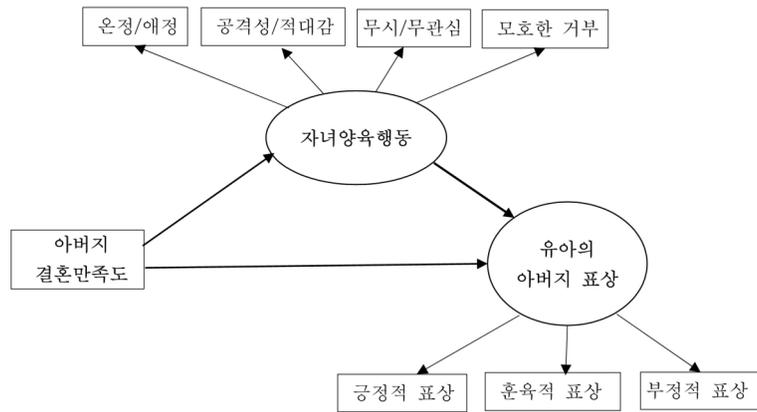
첫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결혼만족도는 아버지 자녀양육행동($\beta = .45, p < .001$)에 영향을 주었는데, 즉 아버지가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 보다 온정/애정적이었으며 덜 공격성/적대감을 나타내었고, 무시/무관심 및 모호한 거부 역시 덜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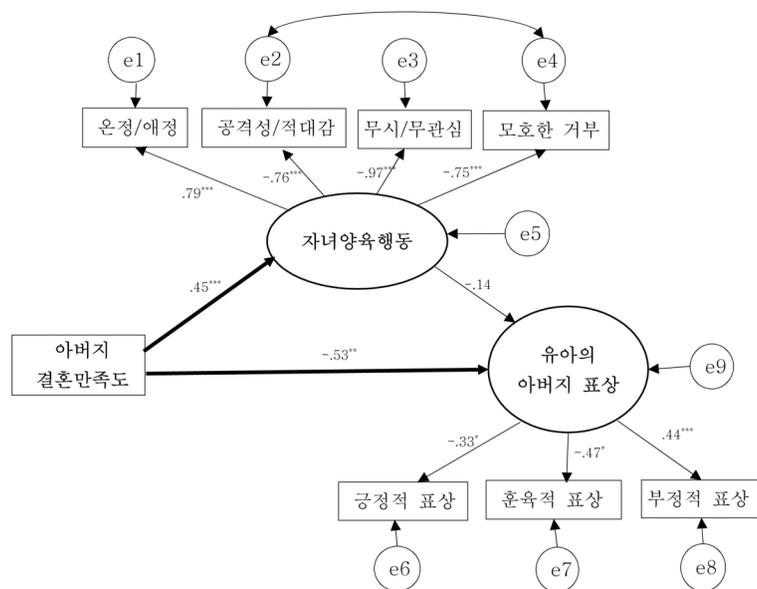
셋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유아의 아버지 표상

〈표 5〉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47.39	18	2.63	.87	.91	.12
수정모형	15.97	17	.94	1.00	1.00	.00



〈그림 2〉 연구 모형



〈그림 3〉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beta = -.53, p < .01$). 즉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훈육적 표상은 더 많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표상은 덜 보였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넷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상의 경로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의 36%를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아버지와 유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는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자녀들에게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무시/무관심한 행동 및 모호한 거부는 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결혼과 자

녀양육 간 밀접한 연관이 존재한다는 선행연구결과(예: Belsky et al., 1991; Cowan & Cowan, 1992)를 지지한다. 또한 아버지의 결혼갈등이 보다 거부적인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되고(Brody et al., 1986),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성영혜, 1998; 이자형, 김혜영, 2004)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아버지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자녀양육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결혼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스피로버 효과를 지지하였다. 즉 가족 내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결혼에서의 긍정적 관계가 다시 자녀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결혼생활에서의 만족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유아의 애착을 이루는 주요변인이며(예: 박응임, 1994; 진미경, 2008; Ainsworth et al., 1978; Van IJzendoorn, 1995), 유아가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는 부모에 대한 표상으로 반영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본 연구결과는 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기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내적·외적 변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지각하는 아버지 대한 양육관련 표상과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데에서 나온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이자형과 김혜영(2004) 및 Stacy와 Lynn(1998)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놀이 상호작용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 훈육지도 등의 순으로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들이 지닌 자녀양육에 대한 개념이 자녀들과 함께 놀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행동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양육행동 간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관찰 등과 같은 보조적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 양육행동과 유아의 아버지 표상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유아는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 표상과 훈육적 표상을 더 많이 보였으며, 부정적 표상은 덜 보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만족은 유아가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배우자와의 관계와 유아의 아버지 애착형성 간 연관성을 살펴본 Roelofs, Meesters와 Muris(2008)의 연구결과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에 만족할수록 자녀와 보다 안정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Frosch et al., 2000; Frosch & Mangelsdorf, 2001; Goldberg & Easterbrooks, 1984; Howes & Markman, 1989), 이는 결혼관계의 질과 유아의 표상과의 관련성을 보여준 연구결과(Shamir et al., 2000)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의 결혼만족이 자녀의 아버지 표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아버지-자녀관계에 있어서 결혼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준다.

넷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아버지 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설 2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가설 2와 마찬가지로 양육행동이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아버지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에 대해 유아가 형성한 표상 간의 부조화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아가 계속적으로 성장해나감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이 유아의 아버지 표상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5세 유아의 발달적 변화에 맞춰 민감하게 양육행동을 전환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 간 함께하는 시간의 양적, 질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주요 메커니즘으로 고려되는 양육행동의 매개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내·외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이야기 완성과제는 유아와의 인터뷰 시행과 코딩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많은 수의 표집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중류층 정상집단이 연구대상이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

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 해당하는 유아와 그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용 질문지는 55.4%의 회수율을 보였다. 낮은 회수율의 이유로는 아버지가 출장 등의 회사일로 인해서 질문지를 작성할 여유가 없다는 것과 아이의 교육에 관련된 것이 아닌 배우자와의 결혼만족과 같은 사적 관련 질문에 대한 거부감 등을 들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앞으로의 아버지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버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만족과 자녀양육행동 및 자녀양육행동과 유아의 표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져 왔던 연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검증해 보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결혼만족의 동시적 효과를 살펴본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유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배우자와의 결혼관계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본다.

■ 참고문헌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혜원, 광금주, 박광배(1995). **K-WPPSI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성수현(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아동교육**, 5(2), 54-72.
 성영혜(1998).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원(2004). 3~4세 유아 애착행동과 애착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 민성혜, 신혜원, 유영미(in press). Korean-MacArthur Story Stem Battery. 유아마음읽기 연구회.
 이영, 민성혜, 신혜원, 유영미, 민현숙(in press). Korean-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 유아마음읽기 연구회.
 이자형, 김혜영(2004). 학령전기 자녀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7(1), 50-60.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진미경(2008). 어머니 애착표상 및 양육행동과 영아 애착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31-42.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혜정(1997). 유아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Belsky, J.(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3-23.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2), 487-498.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rody, G. H., Pillegrini, A. D., & Sigel, I. E.(1986). Marital quality and mother-child and father-child interactions with school-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291-296.
 Brown, G. L., McBride, B. A., Shin, N., & Bost, K. K.(2007). Parenting predictors of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Interactiv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d fathering quality. *Fathering*,

- 5(3), 197-219.
- Buchsbaum, K. K., & Emde, R. N.(1990). Play narrative in 36-month-old children: Early moral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hips.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45, 129-155.
- Cowan, C. P., & Cowan, P. A.(1992).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The big life change for couples*. New York: Basic Books.
-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5), 1015-1024.
- Dainton, M., Stafford, L., & Canary, D. J.(1994). Maintenance strategies and physical affection as predictors of love, liking,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Communication Reports*, 7(2), 88-98.
- De Wolff, M., & van IJzendoorn, M. H.(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71-591.
- Emde, R. N., Wolf, D. P., & Oppenheim, D.(2003).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and Parent-Child Narratives*. New Y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ssinger, R. E.(1987).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4), 425-436.
- Frosch, C. A., & Mangelsdorf, S. C.(2001). Marital behavior, parenting behavior, and multifactor reports of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 Mediation or mode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502-519.
- Frosch, C. A., Mangelsdorf, S. C., & McHale, J. L.(2000). Marital behavior and security of preschooler-parent attachm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144-161.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3), 504-514.
- Holmes, J.(2005).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존 볼비와 애착이론*. 이경숙(역). 서울: 학지사. (1995년 원저발간)
- Howes, P., & Markman, H. J.(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5), 1044-1051.
- Lamb, M. E.(2002). Infant-father attachments and their impact on child development. In C. S. Tamis-LeMonda & N.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Norton, R.(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41-151.
- Parke, R. D.(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43-58.
- Robinson, J., Mantz-Sinonns, L., Macfie, J., Kelsay, K., Homeberg, &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2004).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 Roelofs, J., Meesters, C., & Muris, P.(2008). Correlates of self-reported attachment (in)security in children: The role of parental romantic attachment status and rearing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4), 555-566.
- Rohner, R. P.(1991). *Handbook for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hner, R. P.(1998). Father love and child development: History and current evid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7(5), 157-161.
- Shamir, H., Du Rocher-Schudlich, T., & Cummings, E. M.(200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Unpublished manuscript.
- Stacy, J. R., & Lynn, K. W.(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293-308.
- van IJzendoorn, M. H.(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3), 387-403.

접 수 일 : 2011년 8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27일